

2023 예술지원 정기공모사업 총괄심의위원회 의견

- 2023년도 예술창작 지원금 배분은 청년, 중견, 원로예술인 등 생애주기별로 최근 3년간의 평균으로 지원단가를 결정하였다.
- 예술지원 정기공모사업 총괄심의회는 분야별 심의결과를 종합 비교 검토하였다. 2개 이상 중복 선정된 단체를 확인한 결과 중복 선정이 3건으로 지원원칙에 따라 1개 사업을 결정하였고, 차상위 점수를 받은 단체로 선정하였다.
- 청년작가들의 참여가 감소하여 청년작가들의 예술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겠다.

총괄심의위원장 박진용

1. 청년·중견·원로예술인지원 / 문화예술연구및평론지원

☐ 문학

1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견 예술인 심의 대상은 양으로 보면 작년과 거의 비슷한 숫자를 유지하고 있었다. 개인의 서정을 시적 형식에 의탁해 드러내는 작품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오랫동안 작품 활동을 해온 내공을 느끼기에 충분한 작품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시적 긴장이 떨어진 작품도 적지 않았다. 소설은 몇 편 되지 않았지만 서사성이 강한 작품을 볼 수 있어 기뻐다. 수필의 경우 장르의 특성도 있겠지만 지나치게 교훈적이거나 많은 인용 그리고 정보를 제시하는 작품들이 많았다. 그 가운데 사람살이를 정겨운 시선으로 그려낸 작품도 만나볼 수 있었다. 단체 지원은 대체적으로 오랫동안 활동해온 내력 탓에 제반 사항들이 잘 갖추어진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다만 오랫동안 작품집 내지는 동인지를 발간해온 탓에 형식과 내용면에서 예년과 별다른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음을 지적해둔다. · 원로 문학인들의 지원이 여전히 활발했다. 대전 문학 풍토를 만들고 전파하는 데 일조함을 알 수 있었다. 시와 수필 장르에 대한 편중도가 높았다. 소설이나 아동문학 분야 지원 편수가 적은 점은 아쉽다. 수필에서는 코로나 일상을 그린 작품들이 더러 있었다. 단체 지원에서는 다양한 구성원이 저마다 다른 문향으로 삶을 그려내는 모습은 고무적이다. · 청년 분야의 지원은 문학 후속 세대를 위한 것이다. 지역 문학의 미래를 위해서는 청년 작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지원자들은 기성세대의 감각을 넘어서는 새로운 감각을 보여주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앞으로 더 많은 참여가 있기를 바란다. · 전체적으로 문학예술이 가진 두 가지 측면, 즉 지나온 것들을 돌아보는 면과 더불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는 면도 있었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문학공모에 참여하는 열의는 대전문학의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한다.
2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 문학 분야에 대한 예술창작지원사업 2차 심의를 통하여 지원금을 배분하였다. 심의위원들은 토론을 거쳐 지원 기준을 정하고, 공정하고 효과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 개인에 대한 지원은 운문과 산문을 구분하여 고려하였고, 단체의 지원은 사업의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였다. · 예술창작지원금을 신청한 모든 개인이나 단체에게 요구 금액을 충족시켜드리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 부족한 지원이지만 대전에서 활동하는 문인들이 좋은 문학 작품을 창작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평론	<p>문학연구와 평론 분야도 창작 분야 못지않게 지역 문학 발전의 중요한 영역이다. 심의위원들은 이 분야에도 많은 이들의 관심과 지원을 기대했으나, 아쉽게도 지원자가 많지는 않았다. 그러나 소수의 지원자가 보여준 수준과 역량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선정된 사업들은 새로운 관점, 시대적 적합성, 사업의 필요성 등에서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이들은 깊이 있는 학술적 담론을 생산하여 대전 문학뿐만 아니라 한국 문학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해 본다. 다만, 사업 내용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행정 관련 서류가 미비하여 안타까운 점도 있었다. 향후 대전 지역의 더 많은 연구자, 평론가들이 이 사업에 지원해주기를 기대해 본다.</p>
----	--

☐ 시각A(평면, 회화)

1차	사업목적에 맞는 지역의 시각예술 분야 전문예술인 및 전문예술단체의 창작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개인 및 단체 위주로 심의하였다.
2차	각 신청사업의 규모, 특성, 소요예산, 기간 등을 종합 분석하여 각 사업에 대한 지원액은 심의위원회에서 유사 사업들과의 형평성, 객관성 등 종합 비교 검토 후 결정하였다.
평론	평론 분야는 사업목적에 맞는 대전지역 문화예술 조사, 연구, 기록보존, 비평 등 지역예술의 학술적 토대 강화를 위한 평론활동을 할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 위주로 심의하였다.

☐ 시각B(입체, 설치)

1차	<p>· 청년예술인 분야는 다양한 실험적 작가(작품)가 많이 참여하여 의욕이 많다는 점에 흡족하였으나 창의적인 성숙도가 다소 미흡하여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p> <p>· 중견·원로예술인 분야는 대부분 성숙된 작가(작품)가 많이 지원하였으나 충족할만한 예산이 주어지지 않아 우열을 가리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지원한 작가들 중에 자료미비로 탈락한 사례가 적지 않아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아울러 작가의 소양과 창작열을 고취하는데 심의에 역점을 두었습니다.</p>
2차	주어진 예산으로 규모, 특성, 소요예산 및 재료를 중점적으로 배정하였다.

☐ 시각C(서예)

1차	· 전문성과 신청프로그램의 예술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활동실적 및 사업 수행 역량 등을 기준으로 심의하였다.
2차	· 사업규모, 특성, 소요예산 등을 종합 분석하여 공정하게 심의위원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

☐ 시각D(사진, 영상)

1차	· 신청서류의 탈루, 오류 부적격 여부 검토 · 사업의 창작성, 참신성, 적정성, 참여인원, 사업규모, 지역사회의 기여도, 문화예술 정서 향상에 대한 기대효과를 고려하여 엄정 심의하였다.
2차	· 심의위원의 중지를 모아 서류검토 및 예산 사례를 종합 검토하여 성실히 평가 하였다.

☐ 음악

1차	· 2023년 공연예술 지원 공모 사업 분야는 청년, 중견, 원로로 나뉘어 심사하였다. · 많은 지원자들을 마주하며 대전 예술인들의 활발한 예술창작 활동과 역량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공연 계획의 참신성, 실효성 있는 공연계획, 충실한 제안서를 제시한 다수의 예술단체(개인)에게 높은 성장 가능성을 제고하였다. · 사업목적과 계획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창작 환경 및 연구 활동에 지원하여 작은 기여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 기대 효과가 충족된 무대가 되어 지역 문화 예술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를 바란다.
2차	· 지원금의 결정은 예산액을 근거로 사업의 규모, 내용, 장르,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평론	음악분야 지원신청 건은 활동실적 증빙자료 누락에 따라 선정 불가하였습니다. 향후 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를 충실히 준비하여 작성하시길 바란다.

☐ 전통(국악)

1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수 전통, 퓨전그룹, 전통무용 등 분야의 우수한 업적과 역량을 지닌 개인 및 단체가 지원하여 본 사업의 수준을 제고함. · 선정 개인 및 단체는 2023년 한해를 빛낼 수 있는 대전의 개성과 역량이 뛰어난 예술가, 단체를 우선으로 선정함.
2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금은 각 개인, 단체의 올 한해 활동계획의 구체성, 준비성, 확장가능성 등 기준을 적용하여 엄격하게 선별, 선정함.

☐ 무용

1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자의 전문성과 참신성을 주로 심의하였음 · 육성·발전시켜야 하는 항목의 규정이 있어야 함 · 창작무용의 활성화를 위한 기금 확대 필요
2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자들의 규모, 특성 및 유사 사업들과의 형평성, 객관성을 토대로 심의하였음.

☐ 연극

1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간의 팬데믹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예술 활동을 펼치고 있는 대전의 예술가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 지원 작품들 중에는 지역 문화를 살리려는 지역 소재 발굴 의지와 정통 클래식 쪽의 움직임들이 활발해진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 앞으로 이 지원 사업을 통해 관록 있는 중년을 중심으로 청년층에게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의 창작 여부, 출연진과 스텝의 규모 등 최대한 객관성을 가지고 심의하였다.
평론	<p>연극 분야에 관한 평론 지원 사업을 심의한 결과 지원자 수가 매우 적어서 아쉬웠다. 향후 연극 분야에 관한 연구 및 평론지원에 대한 지원이 많아지기를 바란다.</p>

☐ 예술일반

1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 예술일반 분야의 심의는 청년, 중견, 원로로 구분하여 심의하였다. · 청년분야의 경력과 최초신청자는 구별하여 심의하였고, 최초 신청사업의 경우 활동실적 부분을 감안하여 심의하였다.
----	---

2차	· 1차 지원 심의로 선정된 사업을 바탕으로 사업의 규모, 특성, 소요예산, 기간 등을 종합하여 지원예산 규모 등을 결정하였다.
----	---

☐ 다원

1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 예술의 서울 집중도가 심화되는 환경에서 다원예술이 지방에서 시도되고 꽃피우기는 어려운 실정이나 아래 기준을 중점으로 심의하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단체)의 다원예술에 대한 이해와 실행력 - 작품 발표 시 기대되는 관객과의 교감과 만족도 - 장르의 나열이나 반복을 벗어난 예술적 결합 - 미래 장르로서 비전과 확장성 · 소재와 주제면에서 작년도와 중복되는 사업들도 있어 아쉬움을 남겼다. 다원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새로운 창작으로 구성된 작품들이 눈길을 끌었다. · 창작을 시도하는 예술인들에게 공적 기금이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그 결과 독창적인 창작물을 시민이 향유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향후 좀 더 융합적인 시도, 창작실험 등이 있었으면 한다.
2차	· 1차 전문가 심의에 모니터링, 정산 등 행정 요소를 합산한 점수로 계산하여 지원금액을 결정하였다.
평론	문화예술분야연구및평론의 작업을 기획하여 대전지역 예술가의 작업을 아카이빙 하는 작업은 장기적인 토대 마련에 도움을 준다. 단편적인 청년예술인 또는 문화기획자의 인터뷰와 아카이빙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교류로 다원예술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지역예술인의 창작활동 기록을 남기는 것은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본다.

2. 차세대artiStar지원

☐ 문학

	· 지원금액 대비 성실한 활동을 하였고 제주, 대전 등으로 이어지는 문학 체험이 충실하였으며 시와 산문 분야의 문학적 성과가 우수함.
--	--

☐ 시각

- 신청자들의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한 결과 다소 미흡한 부분도 눈에 띄었지만 청년 작가들의 작품활동에 대한 열정과 패기를 감지할 수 있어 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음악

- 대전의 음악분야를 선도해 나갈 젊은 음악인들이 모두 훌륭하게 성장해 왔음에 큰 기대를 걸어본다. 또한 모든 지원대상자들을 지원해야 마땅하나 그렇지 못함에 미안하게 생각한다. 젊은 음악인들의 생각이 체계적이며 구체적인 방향과 기량에 놀란다. 대전 음악 발전의 밝은 미래를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 전통(국악)

- 프로그램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공연 특성과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추진하기 바람
- 국내외는 물론 세계로 나아가는 스타로 성장하기 바람
- 특히 홍보를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바람
- 레퍼토리 확장의 의미 있는 기획안이 돋보였음
- 지원사업인 만큼 보다 전통적인 배려가 필요함
- 판소리지만 국악기와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을 요함

☐ 무용

- 차세대아티스타로서 지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전국에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연수를 통해 자신의 안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면이 우수하다고 보여진다. 이를 위해 사전 준비절차가 철저히 필요하며 출국 전 많은 정보를 수집하여 자신의 영향력 강화에 충실도가 높아지기를 바람
- 좋은 기회인 만큼 참여기간(연수) 전, 후로 연수지역 근교에서 행해지는 공연프로그램 또한 많이 경험하길 추천드리며 이를 바탕으로 2년차에 충실한 성과보고가 진행되었으면 한다.
- 아쉬운 점은 참가 신청자가 많이 줄어든 부분으로 이러한 현상은 아마도 긴 기간 코로나 영향력 때문으로 생각된다.

□ 연극

- 이번 심의에서는 신규지원자 1명, 2년차 연속지원자 2명으로 총 3명이 심의 대상이었다. 코로나의 영향이라 이해는 되지만 특히 신규지원자가 1명에 머문 것은 매우 아쉽다. 역량을 갖춘 지원자들이 많아져서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 인터뷰에서 지원목적과 어떻게 자신의 역량을 강화시킬 것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해야 하는데 이에 미치지 못한 지원자들이 있었던 것도 안타깝다. 그럼에도 이번 지원자들을 선정한 것은 지역 연극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가진 차세대아티스트라는 점에 심의위원 모두가 동의했기 때문이다.
- 이번 지원으로 지역 연극 발전에 일조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 1년차 선정자는 반드시 사업 추진 결과보고서 제출을 전제로 지원하는데 심의위원들이 동의함

3. 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

- 국제교류 전반에 걸친 행정자료와 국제관습에 적합성 여부를 1차 판단기준으로 함
- 국제교류의 타당성, 효용성, 기대효과의 충실도를 중점 심의
- 교류사업의 지속성과 글로벌 문화대전의 기여도를 살펴봄
- 피초청자의 현지 안전성에 대한 고려
- 예산책정의 타당성과 이에 걸맞는 프로그램 여부 확인

4.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 전반적으로 공연장과의 연계와 협조 조건이 양호하나 공간 지원 외에 인적 지원도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과거를 통해 반성과 미래를 그려내는 소재가 주를 이루는 듯하여 동시대적인 소재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기를 기대함
- 타 장르 또는 인접분야에 대한 개방성과 수용성은 긍정적이나 도리어 그에 따른 정체성 불분명도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적극적으로 관객의 니드를 찾아가는 소통의 태도 역시 바람직하나 대중성 치중에 따른 고유성 상실에 대한 숙제도 상존
- 예산 수립 시, 보다 치밀한 계산이 요구됨
- 본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재단의 타 사업과의 비교 등을 통한 이해도를 높이는 방안 필요

5. 장애예술인창작활동지원

- 작품성이 적정한 수준에 도달한 지원자(단체)를 우선으로 하였음
- 심의 규정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선정하였음

6. 지역오페라단공연활동지원

- 대전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표적인 4개 단체가 심의에 참여하였다.
- 지원신청을 검토한 결과 대전 오페라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새로운 창작오페라에 대한 기대감으로 두 개의 단체를 선정하였다.
- 심의위원회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과정을 통해 두 개의 단체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7. 지역대표공연예술제지원

- 지역을 대표하는 공연예술제를 지원하고 신규 발굴하여 지역의 공연예술 기반을 구축하고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코자 경력단체와 신생단체를 심사함. 기존 경력단체들의 경우 각각 지역을 대표하는 공연예술제로 자리 잡고 있으나 일부는 사업의 구체성이 부족한 부분도 드러나고 있음.
- 일부 단체를 제외하고 아직은 지역대표공연예술제로 자리매김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되나, 가능성을 기준으로 심사함. 지역대표공연예술제의 한정된 예산을 감안할 때 선택과 집중을 위한 지원 제한기간 제도 운영도 필요하다고 판단됨.

2023년도 예술지원 공모사업 심의위원 명단

[청년·중견·원로예술인지원/문화예술연구및평론지원]

분 야	성 명			분 야	성 명				
문 학	박	진	용	위원장	전통(국악)	윤	명	원	위원장
	김	명	동	위 원		이	석	규	위 원
	김	미	희						
	우	대	식						
	이	형	권						
시각A (평면, 회화)	강	구	철	위원장	무용	엄	정	자	위원장
	김	상	호	위 원		김	주	희	위 원
	이	영	우						
	정	황	래						
	황	효	실						
시각B (입체, 설치)	차	상	권	위원장	연극	정	인	숙	위원장
	강	현	옥	위 원		김	종	현	위 원
	김	기	수						
	이	수	정						
	최	주	연						
시각C (서예)	김	두	한	위원장	예술일반	하	경	희	위원장
	구	경	희	위 원		오	지	희	위 원
	서	성	관						
	임	복	심						
	정	권	호						
시각D (사진, 영상)	유	병	주	위원장	다원	배	기	호	위원장
	강	현	옥	위 원		신	정	원	위 원
	김	문	호						
	윤	보	상						
	전	재	홍						
음악	최	원	선	위원장					
	강	진	희	위 원					
	김	종	민						
	임	승	구						
	총 11개 분야 / 53명								
※ 해당사업: 총 4개 사업 / 청년예술인지원, 중견예술인지원, 원로예술인지원, 문화예술연구및평론지원									

[차세대artiStar지원]

분 야	성 명		분 야	성 명	
시각	김 영 호	위원장	무용	오 선 희	위원장
	이 재 황	위 원		김 경 신	위 원
	진 혜 윤			김 예 림	
음악	임 권 묵	위원장	연극	이 은 경	위원장
	박 대 진	위 원		박 문 희	위 원
	박 은 경				
	오 지 희				
	정 완 규				
전통(국악)	김 동 준	위원장	문학	이 형 권	위원장
	김 재 영	위 원		김 완 하	위 원
	윤 명 원			김 홍 진	

※ 총 6개 분야 / 20명

[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 외 4개 사업]

분 야	성 명		분 야	성 명	
국제문화 예술교류 지원	배 기 호	위원장	지역오페라단 공연활동지원	장 수 동	위원장
	김 영 호	위 원		구 천	위 원
	김 정 련			송 민 호	
	송 민 호			이 태 원	
	이 송			임 권 묵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김 철 리	위원장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강 태 근	위원장
	김 경 신	위 원		김 영 호	위 원
	김 재 영			류 용 태	
	노 복 순			임 권 묵	
	박 대 진			최 현 식	
	박 은 경				
	이 태 원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지원	이 용 진	위원장			
	강 현 철	위 원			
	류 용 태				
	양 희 정				
	이 철 우				
	정 상 용				
	한 상 현				

※ 총 5개 사업 / 29명